

JULIAN OPIE

November 2021 | 이현준 에디터

Page 1 of 6



17

OPIE



7년 만에 서울 국제갤러리에서 줄리안 오피의 대규모 개인전이 다시 열린다.
그가 런던 쇼디치의 작업실에서 <데이즈드> 코리아에 보내온 답변.

Text: Lee Hyunjun



173



한국은 여전히 팬데믹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어떻게 지내고 있나.

팬데믹 이후 스케줄이 조금 더 여유로워 생각을 정리하며 지내고 있다. 다행히 스튜디오와 집만 오가며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몸이 아플 일은 없었다. 다만 전시를 기약 없이 미루거나, 전시 설치 현장이나 오프닝 현장을 방문할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까웠다. VR 고글을 통해 원격으로 설치 현장을 볼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기도 했다. 비록 이상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하기에는 무리가 없었다. 브렉시트나 코로나19 이슈만큼이나 재료 수급과 조달 문제에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영국은 지금 어느 정도 일상으로 회복 중이다.

작업실은 여전히 런던 소디치에 있나. 어떤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작업실은 지금도 소디치에 있다. 30년 이상 같은 자리에 작업실을 두고 있다. 가구 제작을 위해 쓰던, 19세기에 지은 창고 같은 공간이다. 열 명 정도의 직원과 함께 일한다. 내가 일하는 공간 주변은 다른 아티스트의 작품으로 둘러싸여 있다. 스스로 위안과 영감을 찾고, 또 보여 주기 위해 개인적으로 수집한 작품이다. 내가 일하는 공간은 내가 창조하는 것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규모, 양식 할 것 없이 말이다. 심지어 내가 그리는 사람 중 많은 경우 작업실 인근의 이웃이 모델이 된다.

7년 전 비 오는 사랑동 거리를 그림으로 남겼다. 서울스케이 빌딩 전체를 메웠던 ‘Crowds’(2014)가 행인들에게 각인시킨 임팩트는 말할 것도 없다. 한국은 어떤 기적으로 남아 있나.

이렇게 격변하는 시대에 서울은 물론 한국의 몇몇 도시를 알아갈 수 있다는 게 행운인 것 같다. 1990년대에도 나는 한국에서 몇몇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국제갤러리와 협업한 덕에 더 자주, 또 널리 전시를 지속할 수 있었다. 수원이 좋았고, 난 특히 부산을 좋아한다. 한국이 뿜어내는 에너지는 어마어마하고, 지금 이곳에도 거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국 어느 시골 마을에 사는 내 조카는 지금 한국 음악과 영화에 흠뻑 빠져 있다.

이번 전시에는 사람이 아니라 서울과 한국에 자리한 건물과 아파트의 형상에서 영감을 받은 조각 작품이 있다.

폭다운 기간 동안 나는 온라인 지도를 커서 한국의 지리를 살펴봤다. 그러면서 내가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눈여겨본 ‘아파트’를 그려보기도 했다. 언급하셨다시피, 지난번엔 서울을 걷는 다양한 사람을 그렸다면 이번 전시엔 인천 교외의 어느 커다란 건물을 본뜬 조각 작품을 보여드리게 됐다. 인천 근교에 자리한 이 아파트 건물엔 풍성한 디테일이 살아 있으며, 몇 가지 선을 연결하는 것으로 추상화할 수 있을 만큼 그 시각성이 상징적이다. 그렇게 탄생한 조각은 인천의 어느 유명한 건물이 아니라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크고 하얀 아파트 블록을 닮아 있다. 지금은 서울과 수원, 부산의 건축물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작품에 착수했다.

현대적인 건물 말고도 커다란 성을 연상시키는 철제 조각 작품도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런던 스튜디오 인근에 있는 골목을 뒤면서 이 지역의 유구한 역사를 지닌 건물(타워)의 이미지를 수집했다. 1666년 런던 대화재 이후 런던이라는 도시는 완전히 재건된 바 있다. 이렇게 수집한 타워의 이미지를 지금 국제갤러리 K3에 자리한, 접히는 알루미늄판으로 제작한 조각으로 형상화했다.

이번 전시에 선보이는 검은 행인들의 옷차림에서 가을, 겨울의 계절감이 묻어나.

팬데믹 이전, 소디치에 위치한 교통섬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분주한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을 필름에 담았다. 그리고 이 과정을 사계절 내내 반복했다. 거기서 비롯된 겨울과 여름의 시리즈가 이번 전시에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으로, 또 정적인 페인팅으로 선보인다. 계절의 변화는 사람들의 옷차림과 컬러를 바꾸며 작품의 구성과 무드를 대조시킬 여지를 제공한다.

당신도 실제로 걷기를 즐긴다. 어떤 정소를 어떻게 걷는지, 또 걸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얘기해달라.

내가 세상을 진정으로 인지하기 시작하는 순간은 내가 움직일 때다. 움직이기란 걷기일 수도 있고, 달리기일 수도 있다. 사이클을 타거나 운전을 하는 것,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나는 것도 물론 해당한다. 움직여야만 비로소 세상을 ‘전개되는 이야기’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움직일 때 비로소 당신 주변을 둘러보게 된다는 것이다. 휴대폰에만 눈을 고정하지 않는다면, 요즘 자전거를 타는 일이 잦다. 움직이며 이미지를 수집하기가 용이하고, 가다가 언제든 쉽게 멈춰 설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운전할 때 나는 도로의 면면을 사진으로 채집해 짐으로 가져오곤 한다. 요즘 작업에 몰두하며 움직여야만 비로소 온전히 눈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 더 활발히 인지하게 됐다. 움직이는 중에 찍힌 사진은 결코 해독이 불가능하다. 근데 어쩔지 나는 그 사진이 정말 좋다고 느낀다.

인물보다 소, 닭, 사슴 등 동물이 많이 보이는 것도 흥미롭다.

이전엔 왕왕 동물 이미지를 작품 안에 녹여곤 했다. 그러나 이번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초심으로 돌아가 내 주변에 있는 동물을 사진으로 기록하기 시작했다. 이국적이거나 특별한 동물 말고 그야말로 내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동물. 그리고는 동물의 ‘실제 스케일’에 방점을 두었다. 그 동물의 실제 사이즈와 비슷한 작품의 크기. 그러나 컬러는 결코 자연의 색깔이 아니다. 도로 표지판에서 볼 수 있는 컬러를 따왔는데, 우리는 실제로 길가 표지판에 그려진 동물 심벌을 통해 동물을 처음 접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번에 전시된 동물은 사이니지가 묘사한 동물 형상, 광고에 등장하는 동물의 조각, 동물이 형상화된 어떤 로고의 이미지와 닮았다고도 볼 수 있다.

작품을 제작하기에 앞서 실제 모델로 삼은 동물이 있나.

나는 실제로 바닥에 누워있는 사슴이 일어나 서는 순간을, 개가 내 카메라 렌즈와 수평이 되도록 서는 순간을, 새가 일직선으로 걷는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 우리는 심지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비둘기를 유도하기 위해 모종의 세트 같은 도구를 만들기도 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최고 모델이 되어준 건 단연 내 고양이 게인즈버러(Gainsborough). 지금도 인터뷰 답변을 쓰고 있는 나를 석연찮게 바라보고 있는.

당신은 작품 자체는 말할 것도 없고 전시 공간의 구성과 배치, 동선에도 세세하게 관여하는 듯하다. 이번 전시의 공간 기획에 대해서도 들려줄 수 있나.

국제갤러리 서울 전시관에는 네 개의 개별 전시 공간이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조금은 다른 접근법을 통해 각 공간이 강렬하게 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싶었다. 현재 나의 작업 카테고리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사람(people), 동물(animals), 그리고 건물(buildings)이다. 따라서 전시 공간도 리프하게 세 색선으로 구분된다. 궁극적으로는 관람객이 호기심과 관심을 유지하며 추측을 거듭하도록 하고 싶었다. 각 작품을 연결하고 어떤 놀라움을 발견해가면서 말이다. 전시는 영화나 책과는 다른 결을 가진다. 어쩌면 콘셉트 앨범이나 오페라 성격 따는지도 모르겠다. 각각의 곡이 강렬한 소리를 내지만, 결국 전체의 여정이 각 곡의 개별성을 보완하는. 한편 나는 한층 심화된 물음의 경험을 만들어보고 싶기도 하다. 전시 전체를 VR로 기획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 구상을 하고 있다. 아마 내년쯤에 무언가를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골드스미스 재학 시절 스승이었던 마이클 크레이그-마틴(Michael Craig Martin)이 당신에게 그랬듯, 동시대의 새로운 세대, 그러니까 MZ세대 예술가에게 오는 인터뷰를 빌려 한마디해주길 부탁한다. <대이즈> 독자는 의심할 여지없이 당신의 말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마이클 크레이그-마틴은 훌륭한 스승이었다. 예술 학교 재학 시절 내내 그를 나의 튜터로, 그 이후에는 친구로 둘 수 있었다는 것은 나에게 어마어마한 행운이다. 그러나 인내심이 부족한 나는 마틴만큼 좋은 스승이 되지 못한 것 같다. 최근엔 예술에 관해 많은 텍스트를 쓰고 있다. 혹시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내 웹사이트에서 내가 쓴 글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때때로 내가 만든 작업을 보며 실증을 느끼곤 한다. 그런 와중에도 나는 언제나처럼, 재미있어 보이는 작고 설득력 있는 프로젝트에 또다시 착수하는 나를 발견하고, 결국은 그게 전시로도 이어진다. 나의 거의 모든 건 관찰에서 비롯된다. 뒤편 내 흥미를 건드려거나 그 지점을 연결하는 것으로부터. 어느 날 내 시야에 무언가가 들어오고, 나는 그걸 놓치지 않고 지켜본다. 그리고 그것으로 무얼 할 수 있을지 고민한다. 전시는 완성품이 아니라 내 창조 과정의 일부다. 날 몰입하게 만들고, 그 이후엔 나를 다시 자유롭게 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과정. 내 아이디어에 논리가 살아 있고 나에게 에너지가 존재하는 한 최대한 많은 작업을 하려 한다. 그러면 오래지 않아 이 작업을 지속해야 하는 맥락이 자연스럽게 끊어지고,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좀 더 나은 무언가를 발견하기도 한다. 두려움은 적으므로 최대한 피한다. 그리고 재미있어 보이는 것, 흥미를 유발하는 매력적인 것을 찾아 쫓는다. 하지만 내 이야기가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